

# 광주일보-시산맥 제7회 동주문학상 시상식 개최

### 수상자·문인들 100여명 참석 본상 안은숙 시인 상금 1천만원 강연·시낭송·장학금 수여도

광주일보(회장 김여송)와 계간 시산맥(대표 문정영)이 공동 제정한 제7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 서울시 종로구 강호화랑에서 수상자와 가족, 지인, 시산맥회원, 문학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 행사가 가능해진 이후 열린 관계로 이전보다 다수의 문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본상 수상자인 안은숙 시인에게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수상작은 '정오에 레이스 달아주기' 등 5편.

안은숙 시인은 소감에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문학인으로서 운동주 시인의 시 정신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건국대 대학원을 졸업한 안은숙 시인은 2015년 '실천문학' 시 부문으로 등단했으며 제1회 시산맥 시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승원 문학평론가는 축사에서 "안 시인의 작품은 운동주 시인의 순수한 시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면들을 갖추고 있다"며 "겸손하면서도 맑은 시가 주는 울림이 있다"고 격려했다.

동주문학상 심사위원장인 장석주 시인은 "오늘 수상한 시인들은 사실은 '불행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칫 삶이 엉망진창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시인의 삶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해외작가상 김선호 시인, 해외작가특별상 문금



제7회 동주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6일 서울시 종로구 강호화랑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광주일보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동주문학상 안은숙 시인, 기후환경문학상 본상 조영심 시인, 기후환경문학상 신인상 김재환 시인, 최치원시인문학상 최은여 시인, 문정영 시산맥 대표. /최현배 기자 choi@

숙 시인, 해외시인상 현은숙 시인은 지난 9월 20일 시산맥 문정영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 LA 코리아 타운에서 상을 수여했다.

이번 동주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제1회 시산맥 기후환경문학상 신인상 김재환 시인, 기후환경문학상 본상 조영심 시인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제17회 최치원시인문학상 수상자 최은여 시인

에게는 시산맥 등단패가 증정됐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남북민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김선숙 씨에게 서시장학증서가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호원대 김유인 교수(사단법인 에너지사랑 서울지부장)가 축사 겸 강사로 나서 환경 훼손에 따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주제의 강

의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문정영 동주문학상 대표는 "광주일보와 함께 동주문학상을 제정하고 운영해온 지 벌써 7회째를 맞이했다"며 "내년에는 운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는 중국 용정이나 시인이 옥사한 후카오가 교도소 등을 방문해 시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정혜진 '한국아동문학상'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정혜진(사진) 동화작가가 제32회 한국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동시 '우리 걸연 병원이 있어'.



수상작은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을 누리다는 사실을 모티브로 한다. 특히 병원과 관련된 소재를 정감있는 시어로 풀어낸 잔잔한 울림을 준다. '체온계', '반창고', '청진기', '고무줄' 등 병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의인화해 눈길을 끈다.

고흥 출신의 정 작가는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77년 계간 '아동문예'와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동시집 '날아라 우주선', '바람 배달부' 등 17권을 펴냈으며 한국동시문학상, 전남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평론 부문에는 김종현의 '포스트휴먼 시대 아동문학의 윤리'가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내년 1월 7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2023년도 협회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진도 천연염색 체험하고 남도 민요 한가락 배우고 국립남도국악원 연말 프로그램

진도의 문화 역사를 체험하고 특별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국립남도국악원은 12월 30일을 시작으로 1월 1일까지 '2023 새해맞이 보배섬 국악나들이'를 운영한다.

'우리 소리와 함께하는 힐링'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나들이는 진도의 천년고찰인 쌍계사 방문을 시작으로 전문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소치 허련 선생의 생가 윤림산방을 탐방한다. 또 남도전통미술관에서 천연염색체험을 경험하고 직접 서화체험으로 부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남도 민요 한가락을 배우보는 시간도 갖는다.

체험객을 위한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특별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국악나들이는 특히 2022년 임인년을 떠나보내는 해마다와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기 위한 해돋이를 감상하기 위해 세방나조와 진도 오봉산을 방문한다.

신청은 12월 2일 9시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선착순으로 80명을 모집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38)와 누리집(<http://jindo.guga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베니스에 꽃 핀 '5·18' ... 오월 정신 세계에 전했다

### 광주비엔날레 전시 '꽃 핀 쪽으로' 222일 여정 마무리

'오월 광주 정신을 세계에 전하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가 이탈리아 현지에서 개최한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꽃 핀 쪽으로' (to where the flowers are blooming) 전시가 222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폐막한다.

5·18민주화운동을 미학적으로 재조명하고 '광주 정신'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동시대에 발신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광주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 특별전은 제59회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베니스 스파지오 베를렌디스전시장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7개월 간 선보였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제6장 소재목에서 주제를 따온 이번 전시는 1980년 근현대사의 아픔을 은유적인 시선으로 표현, 관람객들에게 인류 보편애와 휴머니즘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획으로 호 추 니엔 등 국내외 작가 11명이 참여했다.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에는 돈 베이커캐나다 브

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한국사 교수를 비롯해 카 포 스키리 베네치아 대학 한국학과, 스페인 나바라 대학교박물관학과, 콜롬비아 대학 단체 관람,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꽃 핀 쪽으로'는 '아트뉴스', '오콜라' 등 해외 미술 전문 매체에서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봐야 할 전시로 선정했으며 베니스 교육 기관이자 도시 재생 및 관광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세스코트 베네토 주관 '베니스 아트 워크' 전시 투어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도 했다.

그밖에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과 연계교육프로그램을 진행,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현지 대학생과 교민을 대상으로 전시해설사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진행, 선발된 10명이 전시 도슨트로 활약했으며 한강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됐다.

한편 재단은 29일 스파지오 베를렌디스 전시장



광주비엔날레재단이 5·18 4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특별전 '꽃 핀 쪽으로'가 22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29일 폐막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열린 개막식 모습.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에서 베니스의 해양과 도시를 보호하는 환경단체 위아이어베니스(We are here Venice)와 장기적

인 협력 체계를 맺는 협약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섬-사람-이야기 잇는 '천사대교 너머에'

### 박상돈 사진전 30일까지 목포문예회관

섬과 섬이 연결되면 사람이 연결되고, 이야기가 연결된다.

지난 2019년 4월 개통된 신안 천사대교는 신안군 암태도와 암태도를 연결한다. 1750m 길이의 다리가 놓이면서 암태도, 자은도, 안좌도, 팔금도, 자라도, 추포도 등 6개 섬은 이어졌다.

1004개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의 이미지를 따명한 '천사대교'가 개봉되면서 신안군은 관광의 보고로 떠올랐다. 또 오랫동안 바닷길로 밖에 왕래할 수 없었던 섬 사람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일상도 풍요로워졌다.

신안군의 랜드마크 천사대교를 배경으로 봄여름 가을겨울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박상돈 작가 사진전 '천사대교 너머에'가 오는 30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5전시실에서 열린다.

신안군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한 박 작가는 계절에 따라, 하루 24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천사대교의 매력에 빠져 개통 직후부터 수시로 카메라를 메고 나가 다양한 풍경을 앵글에 담



'천사대교'

았다. '있다·만나다·물들다·머물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천사대교의 다양한 모습을 풀어놓는다.

푸른 물결, 수시로 모양을 바꾸는 구름, 해질 무렵 붉은 노을이 쏟아져 내리는 천사대교는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또 흰눈이 쌓인 겨울, 다채로운 꽃과 어우러진 봄과 가을의 모습 등 그가 포착한 천사대교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아빠 힐링캠프

### 광주여성가족재단 내달 7일 광산구 큰빛자연생태유치원

광주여성가족재단은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빠 힐링캠프'를 12월 7일 광산구 큰빛자연생태유치원에서 연다.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실현'을 목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육아 중인 가정의 40여명 아버들이 참여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들이 본인의 육아 태도를 점검하고 육아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갖는다.

또 목공DIY 체험을 통해 내 자녀를 위한 장난감을 아버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시간도 준비돼 있다.

재단이 운영중인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시리즈 일환으로 2020년 개통해 시민들에게 성평등 양육가치관 확산 및 임신·출산·양육부터 생애주기별 아우르는 돌봄지원정책과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행사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2-1279.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감독·배우 대화

### 광주독립영화관, 29일...30일 '앵콜! 수요단편극장'



광주독립영화관이 11월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영화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감독과의 대화는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먼저 29일에는 지난 10일 개봉한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가 오후 7시 상영된다. 이후 영화의 김세인(사진) 감독과 양말복 배우가 관객들과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포함해 5관왕을 차지한 해당 영화는 각자의 욕망에 충실한 두 여성의 이야기로 사회가 기대하는 모성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또 30일에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는 '앵콜! 수요단편극장'에서 총 4개 영화를 상영해 보인다. 김세인 감독의 '뮤즈가 나에게 준 건 잠수병이었다'와 이정홍 감독의 '반달곰', 가성문 감독의 '누렁이들', 정주리 감독의 '영향 아래 있는 남자' 등이다.

영화 상영 후에는 김세인 감독과 이정홍 감독의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돼 있다. 앞서 광주독립영화관은 '영화가 된 극장전'을 통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스틸컷.

해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너와 극장에서' 등을 포함해 총 6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매는 디트릭스 혹은 현장에서 가능하며 일반 7000원, 청소년·경로·장애인 6000원이다. 문의 062-222-1895.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